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고시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쌀·고추·옥수수·딸기·멜론·토란 등 12개 품목

곡성군이 지난 22일 곡성군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결과는 곡성군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 기준으로 2020년~2022년 3개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 품목으로는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앞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 12개 품목이다.

곡성군이 결정한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최저가격은(1kg 기준, 한우는 지육단가) △쌀 2,465원 △건고추 17,772원, △꽃고추 2,612원 △옥수수 916원, △딸기 7,044원 △멜론 2,772원 △토란 1,645원 △앞들깨 6,889원 △매실 1,692원 △사과 2,152원 △배 2,284원 △감 1,788원 △한우(비육우/암) 19,254원 △한우(비육우/수) 19,123원 △한우(비육우/거세) 20,120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관내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 수강생' 모집...내일까지

구례군은 오는 27일까지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3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기 교육은 6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총 8번의 강의가 준비됐다. 군은 강의마다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주민 제안 사업계획을 통한 현안 해결”을 주제로 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에서는 사업 주체인 구례읍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군은 실제 발굴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사업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사업대상자 지역주민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교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guryecity>)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월산면,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내고장 나들이'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운우)에서는 지난 22일 지역어르신 43명, 협의체 위원 12명이 함께 내고장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상시 자녀들과 떨어져 살면서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나들이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휴식을 드리고자 장평승로시티와 소쇄원, 식영정을 관광하고 식사를 함께했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담양에 살고 있지만 장평이 이렇게 슬로시티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또 참석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국중문 위원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좋은 풍경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가족센터 신축 개관...글로벌 소통 사랑방 새출발

총 5층 규모 생활SOC복합시설물로 건립...다목적소통·교류공간 및 주차장 163면 갖춰

나주시는 최근 가족센터 가족애(愛)뜰에서 운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사회복지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시가족센터는 사업비 102억원(국비 39억원·시비63억원)을 투입, 주차타워가 포

함된 생활SOC복합시설로 건립됐다. 2019년 건립사업 확정 후 2021년 8월 착공, 이듬해 10월 준공됐다.

센터는 지상 5층, 연면적 1773㎡규모로 1~2층은 가족센터 공간으로 2층 일부와 옥상층까지는 주차장(163면), 전기충전소(2기) 등이 들어섰다.

1층 다목적소통공간에는 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교실이 2층 교류공간에는 다목적 강당, 가족 요리실 등을 갖췄다.

2007년 개관한 나주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시민의 욕구 충족과 부모들의 육아 정보 공유, 아동 놀이공간, 돌봄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신축된 나주시가족센터가 육아 정보공유, 놀이, 돌봄 기능을 갖춘 글로벌 가족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 지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꿈지락 키친 진행



어린이 대상 화순 특산물 파프리카 활용한 오감만족 영양교육 실시

화순군은 23일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가 어린이들의 골고루 먹기 및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꿈지락 키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 급식소 사전 신청을 받은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차·2차 교육으로 나눠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한다.

1차 교육은 다양한 색깔의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선택한 '나만의 파프리카 인형' 만들기이다. 오감(청각, 후각, 촉각, 시각, 미각)을 활용해 채소·과일을 구분하고 친해할 수 있는 계기

를 형성하여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2차 교육은 '무지개 밥만들기'로 체험형 요리 활동을 통해 편식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 역할을 하는 채소·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섭취를 유도하면서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다.

급식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매일 '도레미 식단'을 통해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돕는 제철 식재료를 선정, 단계적으로 식습관 개선을 돕는 편식 개선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안희 센터장은 “어린이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편식 예방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